

# 佛 르 콩소시엄, 문화전당 콘텐츠 구축 참여

〈세계적 현대예술기관〉

### 개관까지 전당 내·외부 공용 공간 디자인 보강

### 지역 연계 문화 상품 개발·페스티벌 등 진행

국제적으로 손꼽히는 프랑스 현대예술 센터인 '르 콩소시엄'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구축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기관은 문화전당을 돋보이게 하는 통합적 이미지를 만들고 창조원의 문화콘텐츠 구축사업을 맡는다.

문화부는 27일 "아시아문화개발원이 프랑스 '르 콩소시엄'(Le Consortium)과 내년 9월 4일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의 '디자인랩'(Design Lab)

구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디자인랩은 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용·복합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5개 연구공간(과학기술랩·미디어랩·동시대 예술랩)의 하나다.

르 콩소시엄이 문화전당 사업에 참여키로 합의에 따라 문화창조원의 첫 번째 연구랩의 구성이 완료됐다. 프랑크 고틀로(르 콩소시엄의 창립 멤버)씨와 김승덕씨가 공동 감독을 맡아 디자인랩을 이끈다. 김

씨는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를 역임한 유명 큐레이터다.

디자인랩의 총괄 지휘를 맡은 르 콩소시엄은 문화전당 개관까지 전당의 내·외부 공용공간 디자인을 다듬고 보강하게 된다. 문화전당 5개원의 통합 이미지를 구축하는 업무도 추진한다. 르 콩소시엄은 문화전당이 개관하는 2015년에는 문화전당의 창·제작센터를 바탕으로 지역 연계 문화상품 개발, 페스티벌 개최 등 디자인 관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르 콩소시엄은 1977년에 설립된 현대예술센터로, 카타르 도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파리 퐁피두센터, 팔레트 도쿄 사업 자문, 베니스 비엔날레 프랑스 및

한국의 국가관 커미셔너로 참여한 세계적인 기관이다. 건축 컨설팅, 도시재생 프로젝트, 영화 및 출판 사업 등을 디자인적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르 콩소시엄의 운영 노하우가 문화전당의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성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창조적 사고를 통해 국제적인 문화기관으로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온 기관이 문화전당 사업에 참여해 의의가 있다"며 "국제 문화계에서 탄탄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르 콩소시엄이 전당 사업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14광주국제식품전'이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참석자들이광주시 부스 전시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세계 각국 식품·주방기기 등 한자리에

### 30일까지 DJ센터 '광주국제식품전'...국·내외 240여 업체 참가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나흘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2014 광주국제식품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국제전시협회(UFI)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의 식품 전문 전시회로 국내·외 24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세계 각국의 식품과 식품기기, 주방기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주·대구 달빛동맹관 ▲향토음식특별전 ▲전통주류 특별관 ▲빵제과 페스티벌 등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준비돼 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세계음식관에서는 미국과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의 음식을 한

자리에서 맛보고 즐길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내 유통업체 구매담당자 초청 '구매상담회', '영양사 상담회' 등 특화된 프로그램과 학술행사는 물론, 제3회 광주창업박람회도 함께 개최돼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철수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식품산업 및 음식 문화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식품업체들은 수출과 판매 상담을 통해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홍보·마케팅의 장을 마련한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전남도 오늘 '상생' 관광심포지엄

### 문화전당 연계·요우커 유치 논의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관광심포지엄이 오늘 오후 신안비치호텔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벨트 구상 및 전남 중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벨트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과제 중 하나로, 내년 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남도, 전남발전연구원, 전남관광발전협의회 등이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150여명의 관련 업계 종사자,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1주제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벨트 구상'은 이병훈 아시아문화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박종찬 광주대학교 교수 주재발표에 나섰고 박진현 광주일보 편집부국장, 이연 광주시 문화정책실장, 황지준 한국문화예술위 호남권문화협력과 등이 지정토론을 맡게 된다.

제2주제인 '전남 중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김하림 조선대교수 좌장을, 광행구 전남연생태문화연구원실장이 주재발표를 각각 맡았다. 지정토론으로는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중국팀장, 무홍병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부영사, 송영중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등이 나선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사라진 국산 명태 되살린다

### 해수부, 종묘 생산·육상 양식

### 北명태 수정란 반입도 추진

과도한 남획 때문에 사라지다시피한 국산 명태를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동해안 명태의 연간 어획량은 1970~80년대 7만t, 1990년대 6천t, 2000년 중반까지 100t미만에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2t에 불과할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든 상태다.

해양수산부는 작은 명태인 노가리를 대량으로 잡기 시작하면서 어획량이 급감한 국산 명태를 되살리기 위해 명태 종묘 생산기술과 양식기술을 개발해 2020년부터 국산 명태를 식탁에 올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5년 1월 부화한 어린 명태를 방류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2017년까지 완전한 종묘생산체제를 구축하고 2018년부터는 수정란 또는 새끼 명태를 민간에 보급, 육상에서도 양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명태 수정란을 올해 10만개에서

내년 100만개, 2016년 500만개, 2017년 1000만개, 2018년 5000만개, 2019년 1억개, 2020년 5억개 등으로 대거 늘려 확보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정치여건이 나아지면 북한에서 살아있는 명태나 명태의 수정란을 반입하기 위한 남북 협력사업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서장우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동해의 도루묵과 대구에 이은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내년부터는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명태의 대량 종묘생산으로 2021년부터 연간 4800억원의 경제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 "담뱃세 인상은 소득재분배 악화 조장"

### 납세자연맹 분석

### 간접세 비중 사상 최고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인 2010년 총국세 수입 중 간접세 비중이 53%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세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개발소비세·교통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2007~2012년 간접세 추이에 따르면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8.3%, 2008년 49.3%, 2009년 51.9%, 2010년 53.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시작 직후부터 기업 세금 감면을 추진해 2008년 39조 1545억원(국세의 24.1%)이었던 법인세 규모와 비중은 2009년 35조 2514억원(22.5%)으로 1.6%포인트 감소했다.

'부자 감세'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세수도 부족해지자 정부는 감세정책을 중단, 간접세 비중이 떨어지면서 2011년과 2012년에 49.7%를 유지했다.

납세자연맹은 간접세는 통상 소득이

아닌 소비에 비례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대비 부담세액의 비율이 저소득층에 높은 역진성이 있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MB정부 집권 직전 해인 2007년부터 집권 말기인 2012년 간접세 비중이 1.4%포인트 상승해 소득분배 악화와 빈부격차 심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확정되면 이런 간접세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뱃세 관련 세수 증가분 2조 8345억원 가운데 간접세인 개별소비세가 62%(1조 7569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맹은 담뱃세 인상 후 간접세 비중은 2012년보다 0.9%포인트 오른 50.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 회장은 "간접세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현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추진하는 것은 MB 정부 때부터 가속화된 소득재분배 악화를 더욱 조장하는 것"이라며 "증세가 필요하면 법인세 감면 축소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상담문의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부작용: 수술 초기 아간 빛반점, 노안리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1인당 한도 **최고 28억원까지** 가능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연말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임대보증금대출
- ▣ 신용대출, 상가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